

동성혼에 관한 정치신학적 성찰

김기호(한동대)

초 록

본 논문은 동성혼에 대한 지지 여부로 양분된 미국 교계와 성적 지향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의 공립학교를 살펴보고, 동성애와 동성혼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동성혼 지지자들은 인종차별을 비판할 때 활용했던 도덕성 논증에 호소한다. 그들은 동성혼 반대자를 인종간 혼인금지를 지지했던 인종차별주의자처럼 매도한다. 그렇지만 동성혼은 인종차별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하여, 성경적이며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동성혼의 자유보다 상위의 천부적 인권이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동성혼은 낙태문제처럼 지지와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공적 포럼의 중심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동성혼을 위한 차별금지법안은 독재적 지위를 갖게 되어 성경에 따라 믿고 살고자 하는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천들의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종교의 자유, 동성혼, 동성애,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 공적 포럼, 정교분리

I. 서론

정치철학자 너스바움(Martha C. Nussbaum)이 말한 것처럼, 동성혼(Same-sex marriage)의 문제는 유대교-기독교 전통을 가진 서구사회에서 최대의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Nussbaum: 200). 2015년 6월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이 *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통해 동성혼을 합헌으로 결정을 하면서 성혁명은 역사상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로 간주해왔고, 복음주의 기독교는 동성혼 허용불가를 고수했다. 한동안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숨겨왔지만, 오늘날 게이와 레즈비언들은 숨어있던 벽장에서 나와서 공공영역으로 들어왔다. 헌법적 수준에서 동성혼의 합법성을 얻게 된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적 지향성을 완벽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서구사회의 대부분의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이 있으며, 동성애의 축제는 유명도시들의 정규행사가 되어 버렸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문화적으로 동성애를 용인한 적도 있지만, 동성애를 엄정하게 다루기도 했다. 크리스천인 황제인 저스티니안(Justinian)은 동성애자들에게 교회의 감독 하에서 참회를 요구하는 온건한 입장을 가졌던 반면에,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는 동성애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명령을 내린 적도 있다(Davis:133).

20개국 이상에서 헌법적 수준에 이른 동성애자들의 거센 비판에 대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근거 없는 과장된 공포와 적개심으로 구성된 ‘호모포비아(homophobia)’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한국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 그리고 동성혼의 권리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애 결혼과 동성애 결혼은 사회에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것인가? 필자는 이 논문에서 동성혼의 합헌 판결 하에서도 여전히 양분된 미국교계와 교육계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찬반 논거들을 분석하며, 동성혼 문제에 합축된 철학적 논리를 검토

할 것이다.

II.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분열

1. 미국 교계의 상황

(1) 양분된 미국교계의 주요 교단들

미국의 개신교의 주류교단들은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별히 동성애 성직자를 인정하는 교단과 동성혼을 지지하는 교회는 대개 내홍을 겪고 있으며, 일부 교회와 교인들은 교회의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교단탈퇴를 선택하고 있다. 동성애 성직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미국의 주요 교단들은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미국연합그리스도교회(UCC), 미국연합장로교회(PCUSA), 미국성공회,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미국침례교회(American Baptist)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교회(Disciples of Christ) 등이다.

이에 비해, 보수적인 복음주의 진영의 교단들과 교회는 동성애 성직임명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고 있으며, 동성혼을 성경과 배치되는 세상가치로 보고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복음주의 계열에 속하는 미국의 개신교단들은 대개 동성혼을 반대한다. 대표적인 교단들로는 미국의 남침례교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침례교단들, 하나님의 성회와 같은 오순절 교단, 하나님의 교회, 나자렛 교단을 포함한 성결계통 교단들 및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독립교단들이 적극적으로 동성애자 성직 수용과 동성혼에 대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2) 동성혼을 지지하는 근거: 이성과 문화적 접근

동성애 성직자 허용과 동성혼을 지지하는 교단들은 일반적으로 현대사상, 현대의 과학, 문학, 예술에 개방적인 자세로, 그것들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Olson, 2011:204). 그들은 각기 다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와 동성혼을 위한 기도, 신학, 예전에서 강력한 유대감을 국내수준과 국제수준에서 형성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개신교의 주요한 교단들은 성경, 전통, 이성, 인권이라는 네 가지 권위적 근원을 통해서 동성애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동성애 지향성과 동성혼의 권리를 신으로부터 받은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동성애-동성혼을 지지하는 입장은 성경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게이 신학자들은 이성을 동성애 문제에 대한 권위로 사용한다. 이성의 개방성은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문화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행동의 패턴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우주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탐구, 인류의 문화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동성애 문제도 심리학자, 사회학자,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은 성경과 전통의 요소에 대한 비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은 성경의 저자들은 어느 정도 그들의 상황 속에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현대의 과학과는 양립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고대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의 서구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노예제도, 절대군주제도, 여성비하적인 문화를 지지하기도 한다. 성경의 가르침도 문화적인 한계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성경의 동성애 관련 진술도 현대의 지식에 비추어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경의 일부를 비판하는 것은 성경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상술한대로 성경의 저자들이 문화적 제약성을 갖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율법과 명령이 현대의

문화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법과 사회제도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혼의 권리 역시 법과 사회로부터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정당한 요구라는 것이다(Nussbaum, 1999: 5).

(3) 동성혼을 반대하는 근거: 성경중심의 복음주의

반(反)동성혼적인 입장을 가진 복음주의 교단들은 이성과 전통을 권위의 근거로 삼는 주류교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자들에게는 성경이 유일한 권위의 근거가 된다.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 미국 남침례교를 비롯해서 복음주의 교단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며, 계시된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조로 삼는다. 이들은 성경에 완전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리버럴한 주류 교단들이 인간의 이성과 문화를 권위의 근거로 삼아서 성경의 교훈을 비판하고, 성경의 기록자들을 상대주의적인 문화에 예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2. 미국 공립학교와 성적 지향성 갈등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2014년 11월에 학교에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 항목에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을 추가했고, 그 이듬해인 2015년 5월에 교육위원들은 10대 1의 표결로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하였다. 그것은 “성 정체성”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카운티 교육국에 4200만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활동조직인데, 이들은 인권캠페인(Human Right Campaign)을 통해서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 법안(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법안)을 신용, 교육, 고용, 연방예산, 주택, 법정의 모든 영역에서 “성정체성”의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성소수자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생산하고 있다. 가령 ‘성 정체성’에 따르면, 여성정체성을 가진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진다면, 수학여행 중에, 여성 정체성을 가진 생물학적 남성이 생물학적 여학생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자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한다.

LGBT 활동단체들은 “차별금지 법안”이 보호할 항목에 “동성애적 지향성”을 추가하는 길만이 성소수자의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에게도 보편적 인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성혼 지지자들은 과거의 인종차별이 도덕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그들의 의견을 대중화 및 법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은 동성애가 차별금지 조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성혼이 법제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예산을 통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해 성정체성을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조치인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자연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연법을 여기는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가? 필자가 보기에, ‘성정체성 차별금지’는 도덕성이 아니라, 심리적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의 자유, 경제적 자유, 아동복지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III. 동성혼 지지 이유와 반대 이유의 비교

1. 동성혼 지지논거의 타당성 검토: “동성혼 차별이 인종차별과 동일한 문제인가?”

동성혼 지지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 제시되는 것은 “인종차별과의 동일성 비유”이다. 동성혼 옹호자들은 미연방대법원의 판결 *Obergefell v. Hodges* 은 낙태와 관련된 *Roe v. Wade* 처럼 치열한 국민적 논쟁을 수반하지 않고, 오히려 이 판례는 인종간 결혼 금지를 철폐시켰던 판례 *Loving v. Virginia* 처럼 보편적인 도덕성으로 수용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인종차별론자처럼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차별금지법 조항에 “동성애 지향성”과 “동성혼의 권리”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LGBT는 동성혼의 문제를 인종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듯이, 전통결혼의 신념에 따라 동성혼을 반대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종차별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동성혼 반대자들은 과거의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은 편협한 사고를 가진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의 비도덕성 혹은 무도덕성은 법을 통해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결혼제도의 본질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성적 지향성에 따라 생물학적 몸과 다른 성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반 시민들이 오히려 불관용자나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비난을 당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통결혼 지지자가 동성혼을 반대하고 성적 지향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완고하고 편협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전통결혼 지지자들은 동일인종간의 결혼만을 허용했던 차별주의자처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것은 사법적 독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미연방 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 이후, 일부 미국의 주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여성혐오주의자(anti-woman)”로 매도당하거나 구금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공공정책에 관한 공적인 토론이라는 합당한 지위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적 포럼에서의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여 동성결혼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 여성혐오주의자와 같은 ‘동성애 혐오주의자’ 혹은 ‘반인권주의자’라는 굴레를 씌울 수 있는가? 정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종교와 양심에 따라 사는 시민들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 실제로 이것은 정치와 도덕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정치철학자 존 롤즈에 의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힘은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에서 찾아야 한다(Rawls, 2005: 477). 다시 말하면 국가권력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에 따른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유럽의 기독교는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서 종교재판을 했고, 억압적인 국가기관으로 전락했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를 통해서, 국가와 교회는 각각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적 독재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제한을 당한다면, 이것은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시민불복종 운동에 호소할 시점이 다가온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한다.

2. 동성혼을 반대 논거들

(1) ‘동성혼 반대’와 ‘인종차별금지’는 동일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동성혼 반대는 인종간 혼인금지의 문제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동성혼은 심리적인 성정체성에 의존하는 반면, 인종간 혼인금지는 생물학적인 인종구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양자는 결코 동일한 문제가 될 수 없다. 피부색이라는 생물학적인 차이에 의거하여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인종간 혼인금지’ 조항은 철폐되는 것이 정당하고 필연적이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성과 성정체성은 생물학적 특성에 의거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성혼 반대를 인종주의자들의 인종간 혼인금지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와 역사적 오류에 해당된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인종간 결혼금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속했다. 인종간 혼인금지 법안은 일종의 인종계급 카스트제도가 구현된 사회 안에서만 존재했었다. 이에 비해서, 남녀간의 결합으로서의 결혼제도는 인류역사상 처음부터 있었던 규범이고, 위대한 사상가들과 동서양 종교들은 대개 이성애에 입각한 결혼제도를 올바른 것으로 인정해왔다. 유신론적 종교에 의하면, 인류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 자연적이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기독교철학,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로크와 칸트의 근대철학, 간디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사회사상가들은 대개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연합을 결혼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근대 영국의 식민지들에서 인종간 결혼을 금지하고 처벌한 것은 분명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면서까지 기독교를 지키고자 했던 정치적인 동기를 반영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결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은 결혼의 핵심이다. 인종과 관계없이, 남자와 여자는 결혼으로 연합할 수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인종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은 명백하게 성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프랜시스 벡위드(Francis Beckwith)에 의하면, 인종간 혼인금지 법안은 보통법(common law)에서는 선례가 없는 것으로, 백인의 문화적 주도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지배계급에 가까운 백인의 인종적 순수 혈통을 보존하려고 한 행위에 불과하다. 보통법 체계에서 합당한 결혼의 필수조건은 인종과는 전혀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의 상보성에 의존한다(Anderson, 2015: 137).

(2)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재정의(단순히 두 사람간의 결합)는 이미 성혁명을 통해 무너진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동성혼은 인류의 오랜 역사동안 가져왔던 전통적인 결혼관을 파괴하려고 한다. 동성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결혼관과 성관계를 통한 출산을 결혼의 중요한 기능으로 수용한 결혼관을 약화시킨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의 결혼관은 자연법에 근거한 것으로 합당하며, 성경적인 근거를 갖는다. 그러나 인종간 결혼금지는 타당하지 않으며,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없다. 인종간 결혼금지는 대개 사회의 억압기제로 작용한 것이지만,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서의 전통적인 결혼관은 억압기제가 아니다. 따라서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을 인종문제처럼 다루는 것은 어떤 역사적, 철학적 근거가 없다. 성적 지향은 인종의 문제가 결코 될 수 없다. 동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 보호를 위한 법안(SOGI)을 반대하는 것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다.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이 보호받는 항목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a) 성적 지향성은 도덕적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b) 성적 지향성은 인종처럼 생물학적으로 분명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애매하다, (c) 성적 지향성은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약화시킨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의 존 피니스(John Finnis) 교수는 현대 법체계의 차별금지조항에 “성적 지향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저항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유럽과 미국의 서구사회에서 동성혼이 헌법적 수준에서 합법성을 갖게 된 것은 동성애자들의 주도

면밀한 투쟁과 로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존 롤즈에 의하면 사회의 주요 제도는 “정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말한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쟁적 시장, 생산수단의 사유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일부일처제* 등은 주요한 사회제도의 예들이 된다(Rawls, 1999: 40).” 롤즈가 가족을 사회의 주요제도로 설정하는 이유는 가족의 중요한 역할 때문이다. 가족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도덕적 정치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물론 롤즈는 가족의 역할에 대해 아주 체계적인 설명을 주지 않는다. 롤즈의 전기저서들은 이성으로 구성된 일부일처제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사회의 주요제도로 설명한다. “가족제도가 정의롭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그의 선을 귀하게 여김으로서 그들의 사랑을 명백히 표현할 경우, 어린이는 그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사랑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Rawls, 1999: 629).”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출생과 사망은 매우 중요하며, 출생을 통해서만 그 사회에 진입하고, 사망을 통해서만 그 사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Rawls, 2005: 84-85). 롤즈는 전기사상에서 일부일처제도를 사회의 주요제도로 설정하였기에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지하였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롤즈는 그의 사상체계 안에서 일부일처제를 일관성 있게 주장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질서있는 가족의 생활과 자녀교육에 일관된다면, 동성애자들의 가족”의 형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Rawls, 2005: 467). 현대 미국의 경우, 성혁명을 통해서 이미 출생하는 아이들의 40%는 미혼의 여성에게서 태어나고 있으며, 금번 동성혼 판결을 통해서 부친과 모친에게 생물학적 구분이 없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교육되어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인 결혼제도는 완전하게 붕괴될 수 있다. 롤즈의 전기사상처럼 지속적인 출산이 사회유지에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하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의 전통적인 결혼제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성혼을 이성혼과 동등한 결혼제도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동성혼을 반대하는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천부적 인권이다.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동성혼을 거부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권리가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천부적 인권에 해당된다. 동성애 지향성 보호법안과 동성혼을 반대할 수 있는 종교적인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판단의 오류 가능성과 인식론적인 불일치로 인하여 관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권리가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한다. 동성혼이 한국에서도 허용되고 동성애 지향성을 보호하는 법안이 등장한다면, 천부적 자연권인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침해되고, 종교의 자유는 일요일에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유’로만 극히 제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배시간에 목회자의 설교도 심지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적 정체성” 항목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 동성혼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생긴다면,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종교의 자유와 연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동성혼 지지법안과 그에 따른 혐오금지법안의 제정은 결국 전통적인 결혼문화를 편협한 것으로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적 결혼에 대한 종교행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의 보호, 그 신념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 아동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동성혼의 권리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상위의 가치이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동성애와 동성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적영역의 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

한 대우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위임을 받았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배할 자유와 신에 대한 진리를 추구할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롤즈의 유명한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리에는 “정치적 자유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법의 지배라는 명목으로 당할 수 있는 부당한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되며(Rawls, 1999: 106), 국가의 중요한 책무는 당연히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우선적인 것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그는 “국가는 특정한 종교를 선호할 수 없으며 어떤 종교에 가입하거나 탈퇴한다고 해서 벌금이나 근신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은 한 종교에 대한 배교뿐만 아니라, 전혀 종교를 갖지 않는 것까지도 법률상의 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는 도덕적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게 된다(Rawls, 1999: 289).” 롤즈는 “절차의 중립성”과 “목적의 중립성” 중에서 특별히 ‘절차적 중립성’을 지지한다(Rawls, 2005: 192-193). 롤즈가 말하는 중립성에 의하면, “국가는 어떤 특정한 포괄적 교리를 다른 교리보다 선호하거나 장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들로 하여금 특정한 선관을 수용하도록 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Rawls, 2005: 193).” 그래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자녀들이 사회에 존재하는 양심의 자유를 배우고, 배교가 법률상의 죄가 아님을 알게 된다고 한다(Rawls, 2005: 193). 부모의 종교에 대한 배교마저도 법률상의 죄가 아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치적 시민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동성애자 부모의 동성애지지 교육에 대해서 자녀들이 거부하고, 이성애 결혼을 택할 수 있는 “동성혼에 대한 배교”는 감히 생각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가? 동성혼 지지자들이 말하는 차별 금지법안은 동성혼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상적, 사법적 독재에 해당된다. 이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역시 동성혼의 합헌 결정보다는 오히려 ‘혼인제 폐지’를 통해서 아예 국가가 혼인제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Sandel, 이창신 역, 2010). 정부는 혼인 문제를 사적인 영역에 남겨두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샌델은 동성혼이 개인의 자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혼이라는 결혼의 형식이 공동체의 인정과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동성애의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되지 않아야 할 권리로 일단 규정하고 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국의 논리를 좀더 확대해 적용해본다면,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논리는 성정체성에 따라 학교의 수학여행 기간 중에 생물학적 특징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방을 쓸 수도 있다는 방침을 누가 동의한단 말인가? 성정체성이 차별 금지조항에 들어가면, 그 가치는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독재적 지위”를 갖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가령,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 동성결혼 주제를 거부한 목회자들에게 구금형과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동성애 지향성과 동성혼의 지위가 독재자의 횡포처럼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 동성혼의 문제는 임신중절의 핀레(*Roe v. Wade*)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토론의 주제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IV.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성경의 비판적 관점

동성애와 동성혼의 문제는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 조명해야 한다.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가 지적한 대로, 결혼과 국가는 창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다. 결혼에 관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본문은 남성과 여성의 창조와 이성애에 근거한 결혼제도를 기록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부부로 일부일처제의 원형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세에 만드신 최초의 제도로써, 인류의 타락 이전부터 존속해온 “유일한” 제도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아담)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1:27).”;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 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창2:22-24).”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창세기의 기록과 동일한 관점으로 결혼제도를 설명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마19:4-6).” 예수님은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 아담과 이브의 창조기사를 사실로 확인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있던 결혼제도를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보존해야 하는 제도로 풀이해주셨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각자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가정을 형성해야 한다. 최초의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아담은 흙에서,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만 다르다. 본래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결혼제도를 통하여 재연합하게 된다. 아담과 이브는 단순한 친구관계도, 단순한 동거인도 아니며, 그들은 오직 ‘한 몸’이라는 표현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신비로운 관계를 이룬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2:25).”는 것은 부부의 친밀함을 함축한다. 사도 바울은 남녀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비유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큼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엡5:31-32).”

예수님은 언약으로서 결혼의 우선적인 목적은 결혼한 부부 상호간의 사랑과 협조라고 말씀하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창 2:18).”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요 친구요 협조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1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든지 동시에 한 아내 이상을 가지거나, 어떤 여자든지 동시에 한 남편 이상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결혼 제도에서 또 다른 목적은 출산이다.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의 언약이 취소될 수 없다. 그렇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전히 출산은 결혼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된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라는 이성애 결혼제도만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구상하신 제도이다. 이 점에서 동성혼은 성경의 결혼관과 양립될 수 없다. 동성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적 성향이 자연스러운 본성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단견에 불과하다.

동성애와 동성혼 지지자들은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죄로 간주하는 사도바울의 견해를 거부한다. 우선, 그들은 사도 바울이 “동성애 성향”과 “동성애 탐닉자”를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 완전한 동성애자들은 여자와의 ‘올바른 성관계’를 처음부터 갖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이 배우자와 서로 사랑과 진정한 헌신의 관계에 있다면, 바울의 정죄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로, 동성애자에 대한 바울의 정죄는 인격적 본성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가령 보스웰은

이방인들이 자연스러운 유신론적 성향과 성적인 성향을 포기했다는 것에서 바울의 비판의 핵심이 있다고 본다. 보스웰은 로마서 1장26절-27절에서 자연스런 관계는 부도덕함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동성애 금지의 시대와 문화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가령 서우(Seow)는 바울의 비판이 모든 세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퍼니쉬(Furnish)는 바울의 전제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태도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동성애가 우상숭배와 관련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죄가 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렇지만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유다는 모두 동성애와 성적인 음란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이라고 공통되게 지적한다. 존 스토틀에 의하면, 디모데전서 1:10, (불법한 죄의 예들)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for the sexually immoral and homosexuals,”에서 ‘남색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말라코스 μαλακός”는 남색의 상대자로서 수동적 역할을 하는 남성을 가리키고, “아르세노코이트스”는 동성애 관계에서 적극적인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를 가리킨다(Stott, 1998: 26-30).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의 목록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남성 매춘부와 동성애 제공자로 여겨지는 “말라코이 (malakoi)”를 포함시킨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arsenokoita*와 *pornia*를 그 목록에 포함시킨다. 상술한 대로, 성경에서 동성애를 언급하는 구절은 동성애를 금지하며, 분명한 죄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일리는 바울을 포함하여 성경의 저자들이 ‘성적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성경의 진리를 시대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보스웰은 “말라코스”가 동성애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려고 한다. 동성애를 죄로 지칭하는 성경의 본문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그것이 친동성애적 신학자들의 논거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죄의 지향성과 죄의 행동과 결과를 명료하게 구분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desire)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4:9).”라고 말씀하였다. 죄의 소원은 죄를 짓는 성향으로 보아도 된다. 동성애를 포함한 죄를 향한 성향(소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갖는 특성이다.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 죄의 성향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동성애적 지향성’을 알지 못했다는 비난은 ‘성경이 동성애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 점에서, 존 스토틀은 친동성애적인 성경본문 해석을 단호하게 오류라고 비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관행을 거부하는 것은 고립되어 있고 분명치 않아서 얼마든지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몇몇 증거본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tott, 정옥배 역, 2005: 517). 그는 동성애 관행에 대한 성경의 부정적 인식은 창세기의 성욕과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일한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포함한 심각한 죄들의 고착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교훈이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금지는 창세기의 최초의 결혼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과 이성애의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V. 결론: 공적 포럼의 중심의제 설정의 필요성 제안

동성애자들의 동성혼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안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재난이 될 것은 분명하다. 비록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과 법조인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전히 친 동성애/동성혼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천부적인 기본권에 해당된다. 동성혼을 거부하는 크리스천의 신앙

과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기본권에 해당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몇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아담 이후의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 펠라기우스(Pelagius)와 근대의 계몽주의 철학은 선한 인성론과 자유의지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적 인간관은 원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을 전제한다. 복음주의적 성경해석에 따르면, 아담의 범죄(원죄)를 기점으로 인간의 본성은 타락되고 부패되었다. 원죄와 타락을 전제한다면,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본성적 자연스러움을 도덕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욕구를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이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2:3)”가 되게 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죄악이 일어나는 마음을 다스릴 것을 요구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Its desire is for you, but you must master it)”라고 말씀하셨다. “its desire”는 다스림의 대상이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살인, 시기, 질투, 분당 등 죄악의 욕구를 자연스런 본성처럼 느낀다. 이성간 결혼에 대한 대안은 동성혼이 아니라, 독신과 성적 절제이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임으로써만 변화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라고 선포한다.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다. 중생과 성화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6:9-10)”라고 말한 직후에 바로 이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전6:11)”라고 하였다. 그렇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복음의 능력만이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 성경은 동성에 성향과 동성혼을 죄의 경향성의 표출로 본다. 결국 동성에/동성혼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의 수용과 연결된다. 즉 성경의 교훈대로 믿고 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나아가 동성혼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다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죄와 거룩함을 구분하여 가르친다. 모든 죄인을 사랑하지만 회개해야 할 죄의 목록은 분명하다. 성경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명확하게 죄로 규정한다. 교회가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과 동성애와 동성혼을 옳다고 교회가 지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다. 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오직 철저히 회개만이 필요하다. 존 스토틀 목사는 “동성애 결합과 결혼을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Stott, 1998).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음주의 교회는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인수하여 세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적인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리더십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엄격하게 말씀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약3:1).” 성경의 결혼관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이루어진 이성애에 입각한 일부일처제를 지지한다. 이외에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동거, 불륜, 성매매, 수간 등은 모두 혐오스러운 죄에 해당한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성경적인 결혼관에 따라서 살고, 성경적인 믿음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

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 동성혼은 낙태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될 공적인 포럼의 주제일 뿐이다. 동성혼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일 뿐이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따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동성혼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경적인 결혼관을 고수하며, 성경적인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행사를 동성애자들의 심리를 토대로 제한할 수는 없다. 도덕은 정치보다 앞선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성경적이며 전통적인 결혼관은 국가의 정책과 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자연법적 도덕성에 입각한 것이다. 동성애와 동성혼의 주제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사상의 독재적 지위를 가져서는 안되며, 그것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사회적 담론의 공적인 포럼의 중심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 마이클 샌델 지음·이창신 역 (2010).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 존 스토틀 (2005),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 캐시 루디 (2012). 『섹스 앤 더 처지: 젠더, 동성애,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변혁』. 서울: 한울.
- 플로랑스 마뉴 (2007). 『동성애의 역사』. 서울: 이마고.
- Craig A. Williams (2010). *Roman Homosexu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uane Olson (2011). *Issues in Contemporary Christian Thought*. Minneapolis: Fortress Press.
- Martha C. Nussbaum (1999). *Sex and Social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 Jefferson Davis (2004). *Evangelical Ethics*. Phillipsburg: P&R.
- John Rawls (1999).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 John Rawls (2005). *Political Liberalism*. (Expande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John Stott (1998). *Same-Sex Partnership?*. Grand Rapids: Zondervan.
- Kevin Deyoung (2015). *What does the Bible really teach about Homosexuality?*. Wheaton. Crossway.
- Ryan T. Anderson (2015). *Truth Overruled: The Future of Marriage and Religious freedom*.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논평

제목: 동성혼에 관한 정치 신학적 성찰

저자: 김기호 교수님 (한동대)

논평자: 최용준 (한동대)

본 논문은 동성혼에 대해 찬반으로 양분된 미국 교계와 성적 지향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의 공립학교를 살펴보면 동성애와 동성혼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논거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동성혼 지지자들은 인종차별을 비판할 때 활용했던 도덕성 논증에 호소하면서 동성혼 반대자를 인종 간 혼인금지를 지지했던 인종 차별주의자처럼 매도한다. 하지만 동성혼은 인종차별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음을 저자는 잘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성경적이며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동성혼의 자유보다 상위의 천부적 인권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논증하고 있다. 즉, 동성혼은 낙태문제처럼 지지와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공적 포럼의 중심의제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동성혼을 위한 차별금지 법안은 독재적 지위를 갖게 되어 성경에 따라 살려는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천들의 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임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내용이 아니라 논문 형식으로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I. 서론은 새로운 쪽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2. 1쪽: '(Nussbaum: 200)', '(Davis:133)'에서 연도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4쪽: '동성혼을 반대 논거들'은 '동성혼을 반대하는 논거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5쪽: 피니스 교수의 주장에 대해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
5. 7쪽: 브루너의 지적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
6. 6쪽: 보스웰은 괄호를 열어 원명을 영어로 적어주면 좋겠고 피니쉬와 함께 출처를 밝히면 좋겠다.
7. 참고문헌: 번역서라 하더라도 외국인 저자는 영어명을 사용하며 역자가 있을 경우 밝혀야 하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 저자명의 경우 Last name을 먼저 적고 알파벳순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형식적인 면을 제외하고 내용적으로 본다면 본고는 동성혼에 대해 정치 신학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준 훌륭한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